

“구성원이 바라는 행정·경영 역량과 소통 리더십 증명할 것”

정완용 예비 후보자

정리: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우리학교는 올해 개교 70주년을 맞이했다.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는 경희는 이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또 한 단계 성숙과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다. 총장 선출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구성원들은 행정, 경영 역량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갖춘 차기 총장을 바라고 있다. 지난 27년간 교수로서, 그리고 행정 보직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개교 70주년을 맞은 경희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문화 세계의 창조’, ‘학문과 평화’라는 우리학교의 교시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총장 예비 후보자로 출마하게 됐다.

Q2. 최우선 정책은.

핵심 가치는 첫째가 소통을 위한 협력, 둘째는 평화와 화합, 셋째는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노력 장려다. 우리학교를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는 대학, 구성원이 보람과 만족을 느끼는 대학으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인사관리제도와 연구 환경을 개선해 교수연구역량과 성과를 향상시키겠다. 연구비 및 인센티브 제도와 연구 실적 평가 방안도 개선, 보완하겠다. 정부와 지역 사회 및 외부 연구 기관과 연계 협력 시스템 또한 확대할 것이다. 구성원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소통 채널 또한 구축하겠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재정 확충 방안은 대외 전략과 대내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대외 전략으로는 국책연구사업비 수주 증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연구비 수입 증대, 기부금 모금 확대, 국가 고등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다. 대내 전략은 대학원(특수대학원) 연구자 과정 및 특별 과정 활성화, 교내 시설 및 연구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제고, 합리적 지출구조 개선, 산업 재산권 활용을 통한 학교 기업과 창업 지원이 있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원칙은 세 단계를 거쳐 수립돼야 한다. 첫째로 경희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 둘째로 우리 학교의 비전과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전환 정책 방향을 설정한 뒤, 셋째로 근로 관련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재정과 직무분야 연계 분석을 통해 전환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학력

경희대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경희대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상법전공)

주요경력

경희대 경희법학연구소 소장, 경희대 법과대학장, 경희대 입학관리처장,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경희대 감사행정원장

• 대내외 전략으로 구분해

재정 확충 방안 구체화

• 교수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대학 추구

•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합된

연구성과평가와 인사관리

• 구성원 수시 소통 창구 마련,

발전 방향과 목표 공감대 형성

“

입학관리처장 경험 살려

재학생 학업 성취도 향상과

우수 인재 배출이

학교 위상 높이는 선순환을 구축

”

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창의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이다. 또 교육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결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에 더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우리학교의 유학생 총원은 현재 4,727명으로 국내 대학 중 가장 많다. 총 재학생의 6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반면 유학생 중도탈락률은 4.6%로 타 경쟁 대학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실정이다. 우리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교육 수월성 제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유학생을 위한 지원책으로 유학생의 한국어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교수, 내국인 재학생, 유학생이 참여하는 ‘유학생 3자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겠다. 또, ‘외국인 유학생 관리제도 개선 TF’와 ‘교육 수월성 제고 TF’의 충실한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우리학교의 교수 연구 역량과 성과는 갈수록 향상되고 있지만 국제 논문 실적 기준으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

지역 및 정부 기관 연구소 등과 연구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강화, 연구 실적 평가 방법의 개선 및 보완, 우수 해외 연구 기관 및 연구자와의 교류 확대, 교수 상호 간 연구 교류의 장 확대 등을 통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 학교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교수 연구 역량 및 연구 성과의 향상이다.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가 선행돼야만 우수하고 질 높은 학생 교육이 이뤄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 단순한 정량 평가 위주인 현행 연구실적 평가 제도를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동반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사관리제도와 연구비,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연구 영역의 발전 방안 마련과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 교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 연구년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공학관 건립 추진 방안을 마련해 연구 공간 확보에도 힘쓰겠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학부 졸업생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할 만한 동기 부여와 대학원 진학 이후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한다. 우선은 역시 대학원생을 지도할 교수들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성과가 필요하다. 교수와 대학원생 공동연구와 협동 관계를 통해 교수의 연구 역량을 전수받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을 경험할 수 있는 훈련 과정이 체계화돼야 한다. 대학원생에게 외국 유수대학 및 연구기관과 상호 교류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결

국 대학원 과정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시돼야 학부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을 높이고 자율적인 연구 수행 경험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장학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체 교수 회의 정기 개최를 통해 소통과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 또 각 단과대 및 학과별 교수들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채널을 마련하며, 학생들과도 단과대별 단독방을 운영하겠다. 학교 발전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공유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학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구성원의 다양성과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 갈 것이다. 일상적으로는 대학과 대학원에 인권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고 갑질, 성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방지 규칙 제정도 추진할 것이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관리를 위해 관계부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차원의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 사업 수행 평가를 실시하고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 종래 지원 사업의 사후평가와 결과 분석을 장래에 진행될 사업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

Q12. 입학관리처장 경험이 있다. 최근 입시제도 및 교육과정 정책이 급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총장이 된다면 이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교육 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시 확대 등 입시 정책 변화에 대응해 우수 신입생 선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하겠다. 다양한 입시 홍보 방법 활용과 입시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입학 사정관 제도의 발전과 입시 관련 전문성 확보 노력 등이 필요하다. 학교의 위상 상승과 재학생의 학업 만족도 향상, 우수 인재 배출이 우수한 신입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 신입생 입학 유형과 학업 성취도 및 재학생의 졸업 후 진로 연계 분석을 입시제도 개선과 우수 신입생 유치에 활용하겠다. 교수와 직원, 재학생과 졸업생의 도움과 협력으로 지역 사회 및 고등학교 등에 특강을 실시하겠다. 각종 교육, 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시행을 비롯해 지역사회와 국가 및 국제사회에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공적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우리학교를 가고 싶은 대학으로 인식시키고자 한다.